

창세기 읽기 스물일곱 번째

15장 보겠습니다. 15 장 전체 1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까지, 십삼장과 십사장 두 장에 걸쳐서 조카 롯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가 주도권을 행사했고요 하란에 잠시 머물 동안 그때도 데라가 식솔을 거느렸겠죠 데라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하란까지 갈 때에 그 데라의 아내가 안 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홀로 없어요. 그 대목을 읽을 때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했어요. 어찌 되었건 그건 지나간 거구요. 하란에서 내려다 죽은 다음에 아브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조카 롯, 아내 사래와 같이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그 사회의 몇몇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과 14장에서 롯과 그 관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정리가 됐어요. 아브람과 롯이 이제 분가하게 됐고요 롯이 사해 아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패거리 전쟁을 벌일 때 그 모든 재산도 다 강탈당하고 또 롯 자신도 사로 잡히고 수하에 있었던 여러 종들도 다 사로잡혀 갔죠 그 조카의 소식을 듣고 가서 아브람이 그에 따른 이야기가 14장까지 나옵니다.

15장에서 모든 이야기들은 뒤로 물러나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 시선이 집중됩니다. 물론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거기 롯이 나오죠 롯과 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더 이야기하죠. 아브람 이야기를 이렇게 흐름이 갖다가 다시 롯 이야기를 잠깐 19 장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 간 이유는 아브람의 그 믿음과 그 아브람에게 벌어진 특별한 일들을 더 드러내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장은 제가 앞에서 12장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그 언약 혹은 약속 혹은 명령에 해당합니다.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아브람 너를 어떻게 축복한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15장에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도 또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 관계에서 아브람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신앙을 잘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걸 믿기 힘들었습니다. 믿기 힘든 것을 아브람은 믿었던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광신이 바른 신

양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게 또 말도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이비단들이 우리보다 한 수 위죠. 근데 이것저것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실제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그게 증명될 겁니다. 그 상황, 어느 때, 어떻게 정답으로 사각형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인격체의 믿음이 정말 건강했나 하는 그 판단은 그 죽을 때나 가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중간 중간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다 총괄해서 올 때에 그가 정말 성서가 이야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았는지 아닌 지가 드러나겠죠. 내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도 있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비 이단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그 사이비 이단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거 빼고 일반적으로는 그들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런 믿음도 좀 강하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쏟잖아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15장 봅시다. 여기 **아브람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이 달렸습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과 하나님이 거래를 해서, 아니면 서로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의 서로 맞으니까 뭐 계약서를 쓴 것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일 뿐입니다. 명령을 받아들이면 그게 계약의 성립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에 성립되지 않죠 명령을 또 받아들였는지 아닌지도 쉽게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람은 특별한 인물인데 구원되신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1절 이후에 이후는 조카 롯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어느정도 집안 일들이 정리가 된 거잖아요. 집안이라고 해봐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걸쳐서 여기 가나안까지 왔고 또 애굽에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한 친족은 롯 밖에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누구죠.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친족관계가 계속 복잡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누군 결혼한 걸로 나오고 누구는 아무 말이 없어서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창세기 기자가 누구 아내는 누구다 뭐 그 정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아내 이야기가 없어요. 왜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부터 31절까지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롯이 아브람과 같이 이렇게 끝까지 동행한 조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지금 생각이 떠오른 것이 롯의 아내가 누구지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나중에 소돔이 유향불로 망할 때 소금기둥이 됐다는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나 그리고 롯이 언제 결혼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친족 이야기가 정리된 다음에 그야말로 아브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중이라 그랬어요. 내 정신이 말짱할 때가 아니라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 속에 늘 말씀하시나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런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고대인들의 이야기 쓰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 중에** 그럼 우리도 기도하다가 어떤 게 떠오르면 그걸 환생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흔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럼 환상 중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아니라 생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환상이라고 일단 말할 수 있죠.

안경이 있다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으면 이것은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안경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가 머릿속으로 안경을 그리면 그럼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체는 아닌 거죠.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죠. **환상 중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실제적인 일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 아니예요. 저것이 실제로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거죠. 이게 뭐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나 따지기 시작하면 어디에 한 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존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이게 다 없어지니까 지금 강독을 위해서 뭐 열심히 미리 성경도 읽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영상 그림 그런 걸 녹화하는 앱에다가 올려서 보여 드리기도 하면서 준비하잖아요. 리얼한 겁니다. 근데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상 공간에 남아 있겠지만 그 남아 있다고 해서 또 남아 있는 것도 아니죠. 다 지나가는 거만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예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접어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시면 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 그 뒤로 많은 이야기들, 어쩌면 구약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그리고 애굽의 400 년 동안의 소수민족으로 서의 경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주제가 딱 드러나

는 순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예요. 전제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기원전 587 년에 있었던 바벨론 유수 사건이요. 모든 게 파멸되고 귀족들 중심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종으로 팔려 가거나 전쟁포로죠. 가기도 하고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 살기 힘들고요. 유대와 그 예루살렘에는 바벨론 고위관료가 와서 다스리고요.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미래를 두려워했을지 상상해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물론 무너졌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 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 전쟁 통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우리 결국에는 다 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거죠. 그걸 배경으로 놓고 저 말씀 읽어야 돼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조상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찾아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시대가 다른 거잖아요 아브람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당연히 먼저예요. 기원전 15세기쯤 되겠죠. 그리고 바벨론은 기원전 기원전 6세기니까 뭐 그냥 거칠게 해서 뭐 900년 10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쪽 내려오던 전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려오던 것들이 집대성해서 구약성경으로 전체가 묶여진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바빌론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우리가 왜 이러한 운명이 떨어지지는 하는 절망감 두려움 등등 그런 것이 복합되어 있을 때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말합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 종이었을 거예요. 다메섹, 자기 믿을 만한 사람이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는 대답은 아브람 개인의 운명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 유수에 떨어진 고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절망적인 거죠.

아브람의 이야기를 더 붙입니다. 이러한 글을 쓰고 있는 구약성서 기자는 바벨론 포로 유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성서 기자는 공중에 뜬구름 잡듯이 아니면 골방에 앉아서 시간과 역사 일을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었던 신학자들이예요. 그 역사적 배경을 빼면 안 됩니다. 그 많은 설교자나 또 일반 신자들도 성경 읽을 때 떨어지기 쉬운 그 위험성이 그겁니다. 역사를 빼버리는 거예요. 말씀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되

조.

성경의 구체적인 역사를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삶의 자리**라고 이름 붙입니다.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람의 저 이야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는 바벨론 유수라는 삶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삶의 자리, 저 용어가 거의 고정적으로 잡혀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어로 시집임 리벤이라고 합니다. Sitz im Leben 성서 신학자들은 다 아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글을 쓰는 성서 학자도 저 용어는 아마 독일어로 쓸걸요 시집임 리벤. 독일어를 하도 오랫동안 제가 쓰지 않아 갖고 좀 어떻게 보면 어떨 땐 단어가 낯섭니다. 시집임 리벤, 뒤로부터 해석해서 삶의 자리입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다** 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난 뭐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유수의 떨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세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저런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고대 유대인들이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겠죠. 저 말도 되지 않아 저거 우리 신세 보니까 이거 완전 끝장난 거네. 그럼 말도 안 돼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게 있지 그렇게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개 있어 어떤 상황이든지 늘 반응은 다른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을 건강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거죠. 그런 반응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잘 길을 찾은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유명한 얘기죠. 지금 이 이야기도 1절에 따르면 다 환상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걸지도 모르죠. 꿈 현상 희망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잘못되면 그게 망상이 되는 거고 바르게 되면 그게 참된 신앙적 희망이 되는 거고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되면 하늘에 하늘을 우러르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나 저런 말을 듣고 맞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빌론 포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 핵심인데 뭐 그거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가 저렇게 됐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은 기원전 6세기 초에 일어났거든요. 몇 차례 걸쳐서 고향으로 다 돌아와서 뭔가를 새롭게 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아브람이 여호와**

를 믿으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것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올라서서 진일보(進一步)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난 무조건 믿어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갈 때만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무조건 믿음 이게 도대체 무조건적인 믿음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현실이 어떨지 몰라 삶의 자리가 뭔지도 몰라 난 무조건 하나님께서 잘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광신인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경계까지 갈 때에 가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경험도 그와 비슷한 거죠. 믿음과 믿지 못함의 경계선까지 일단 가야 돼요. 믿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실제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이 경계까지 가는 겁니다. 믿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앙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교회에서요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차량 관리하고 뭐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열심히 칭찬받기 위해서도 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거 가능하거든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긴 한데 아 저분은 우리교회 장로감이야. 그런 말 몇 번 들어 보세요. 죽자 살자 교회 일하지 그리고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경건이 자기 옷이 돼서 자기도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은 아닌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까지 가야 돼요.

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죠? 자칫하면 저런 그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상투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말 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도 믿었어. 그 경계에서 어떤 일이 아브람에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바벨론 유수 상황에서 고대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몸부림을 쳤는지를 알아야 믿음이 성립되고 그때 의롭다고 하는 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됐죠. 시간이 돼서 요 정도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렇게 의로 이끄셨다 그리고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뭘 받을 거다 뭐 할 거다 저런 말도 사실은 아브람에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믿었다고 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걸 강조한 대목을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